

개관 후 첫 토론회 '문화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

“문화전당, 지역 예술산업 상생해야”

콘텐츠 특정 분야 편중... 접목 한계
문화도시 7대 문화지구 사업 시급
예술극장 좌석·방음·장애인 시설
콘텐츠·인프라 보완·확충 지저도

“전시 콘텐츠가 특정 예술분야에 편중돼 지역 문화 산업에 접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예술계와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도시 7대 문화지구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이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2일 5·18민주화운동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한 '문화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지난 25일 공식 개관한 문화전당을 두고 열린 첫 토론회였기 때문에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문화전당 인프라를 보완·확충하고 애초 취지에 걸맞은 구동원리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순기 광주지역연합회장은 “문화전당 예술극장은 좌석이 불편하고, 소음과 진동에 취약한 구조”라며 보완을 주문했다. 유현섭 문화전당접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을 위해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러, 점자블록 등을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전당 콘텐츠(전시, 공연 등)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문화전당 창조원에 전시되거나 전시가 계획된 장르가 대부분 특정 시각예술(미디어 아트) 위주여서 실제 문화콘텐츠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많지 않다”며 “문화전당 창작 콘텐츠가 광주시의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과 연계돼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병하 조선대교수는 “문화전당 전시와 공연물에 창작 모터프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역할이 허무맹랑 정



2일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5·18민주화운동 다목적 강당에서 주최한 '문화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상개도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계와의 협력방안과 문화전당 건립효과를 확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승권 조선대 교수는 “문화전당이 지역 문화·예술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반대로 지역 문화·예술계는 문화전당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선정 광주대검검교수는 “문화전당이 세계를 지향하지만, 지역의 중요성도 동등하게 인식하는 글로벌(Glocal)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전당이 지역예술인과 협업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문화전당의 운영과 그 효과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상

호협력력을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7대 문화지구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득영 전남대교수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실제적 내용은 문화전당을 건립하고 광주를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해 7개의 문화지구 재정비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그러나 문화전당에 함몰돼 7대 문화지구 사업이 언제 어떻게 추진될 지 구체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민주적 절차로 유네스코 기록 유산 논의”

문화전당에 유치된 유네스코 기록 사무국 위상 강화

프랑스 방문 박 대통령 밝혀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진행된 특별 연설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치(광주일보 11월20일자 1면)가 확정된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을 언급, 그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 사무국 유치를 통한 아가 이브 구축 등 세계기록유산제도 발전에 대한 기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기록 유산 논의제도가 이뤄지도록 유네스코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9일 유네스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위원회 사무국은 내년 상반기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 입주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 유네스코 관련 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기록 유산 논의제도를 강조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 유산 등재 등을 놓고 일본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 10월 중국이 제출한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유네스코 분담금 삭감 또는 지급 중지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고,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줄다리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줄다리기'(Tugging rituals and games)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2일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줄다리기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아태 지역 4개국이 협력해 해동 등재로 진행된 점과 풍농을 기원하며 벼농사 문화권에서 행해진 대표적인 전통 문화로서 '줄다리기'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철머리 당영등극,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과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 18건을 보유하게 됐다.

국내에는 영산줄다리기(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기지시줄다리기(제75호), 삼척 기줄다리기(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 등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전통 농경농이인 줄다리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농경문화권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으로서 널리 행해져 왔다.

/연합뉴스

함평 대동저수지 햇빛발전소 전력생산 시작

주한영국대사관 기부협약

KT와 주한영국대사관, ㈜대동햇빛발전소 등 3개 기관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수상태양광발전소를 함평군 대동저수지에 건립했다. 함평 대동햇빛발전소(1MW급)는 지난달 24일 시범가동을 마친 뒤 본격적인 전력생산을 시작했으며, 일부 발전 수익금은 지역의 복지시설에 지원하게 된다.

2일 KT에 따르면 함평군 대동면 대동저수지에 건립한 수상태양광발전소인 대동햇빛발전소는 KT와 ㈜남양통신의 특허기술로 공동 시공됐다. ㈜대동햇빛발전소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동저수지를 임대받고 시설구축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했다.

또 주한영국대사관도 1000만원을 투자, 투자금 환수 대신 함평의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이 유엔기후변

화협약 당사국임에 따라 주한영국대사관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번 투자를 결심하게 됐다.

특히,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는 3일 함평군을 직접 방문해 15년간 매년 330만원의 발전수익금을 기부하는 '기부협약'을 체결한다.

이번에 설립된 대동햇빛발전소는 1만 1240㎡(3400평) 규모로, 1MW는 일반가정 330가구에 전기공급이 가능한 양이다.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임야나 농경지를 훼손할 필요가 없이 호수나 저수지 위에 설치하는 친환경 발전사업이다. 수면면적 효과로 5~15% 이상 발전효율도 높는데다, 온실가스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는 3일 기부협약을 위해 함평군을 방문하기 앞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섬마을 공동체 재생 감안한 개발을”

오늘~4일 목포서 국제 녹색 섬 포럼

전남의 섬 개발 정책은 섬의 특성과 수용능력을 감안한 계획과 이를 실행할 섬마을공동체의 재생을 양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부터 4일까지 목포에서 열리는 '2015 전남 국제 녹색 섬 포럼'에서 국내외 참석자들은 섬 자원의 보존을 전제로 개개 섬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국제녹색섬포럼과 전남대 문화융합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중국·일본·네덜란드·덴마크·베트남과 국내 섬 개발 담당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주요 섬 정책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연구원 김준 박사는 “생물다양

성과 문화다양성이 공존하는 섬을 팔지 말고 섬의 가치를 팔아야 한다”며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원칙은 중간 조직 육성,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 주민연대, 섬마을 문화경관 지속 복원 등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섬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원칙과 방향 설정 ▲통합적인 계획과 일체적인 사업 추진 ▲진정한 주민참여형 계획과 사업 추진 등을 섬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중국 저우산 섬 개발 사례를 발표한 중국 저우산시 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부주임은 “섬의 특색을 살리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섬 보호 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해양 자원은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며, 생태의 복구를 추진하

는 등의 기본 원칙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륙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야마구치현 스오시마 이즈타리 가쓰토시 프로듀서는 “1976년 대교 건설로 관광객은 증가한 반면 젊은층 이주로 거주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며 “포털 웹사이트 개설, 특산물 개발과 관광 이벤트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를 초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덴마크, 베트남 관계자들도 자국의 섬 개발 과정 및 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포럼 참석자들은 3일과 4일 각각 강진의 가우도와 고려청자박물관, 신인의 증도, 갯벌센터, 소금박물관 등을 견학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성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감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성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여성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6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명 810 66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Ym 유한바이오 **클릭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eU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